

## 대전문화재단 출범..민간서 문화정책 추진

(대전=연합뉴스) 조성민 기자 = 대전시는 14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지역문화예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대회에 이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.

이 자리에서는 문화예술인과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6명의 이사를 선출했다.

이날 설립한 대전문화재단은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활동 지원 및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,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사업 등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게 된다.

또 이번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정부공모사업 및 국비지원 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프로젝트 사업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.

대전시 관계자는 "재단설립으로 문화예술 관련 행정체제가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다"며 "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min365@yna.co.kr

(끝)

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.>

[2009-09-14 17:00 송고]